	보도자료			3 재외동포청 ♣
인천광역시	배포일자		월 19일(금) 2매	신청설치 확정!
담당 부서 자원순환과	담 당 자	• 자원순환시 • 담당자		항삼 ☎440-3581 옥 ☎458-7088
사진(이미지)	□ 없음	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인천환경공단, 최첨단·친환경 지원순환센터 건립 협업하기로

- '자원순화센터 건립 협업 테스크 포스(TF)' 구성 -

- 시·공단·전문가 20명 참석, 최신기술 도입과 주민 친화 시설 건립 방안 논의 -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이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자원 순환센터 확충을 위해 최신기술 도입과 주민 친화적인 시설 건립을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19일 인천환경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인천시-인천환경공단 간 '자원순환센터 건립 협업 테스크 포스(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협업 테스크 포스(TF)'는 인천시 자원순환센터 건립 시 최첨단·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기술 및 운영적 측면에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매월 회의 마다 주어진 안건 내용에 따라 자문위원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 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공단-전문가 등 20여 명이 한데 모여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중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원순환센터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공유하고, ▲향후 최적의 기술 도입 ▲자원순환센터 신규건립 시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기술 검토 ▲현재 운영 중인 자원순환센터의 시설 성능 개선방안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 방안 ▲타 시·도 주민 편익 시설 설치현황 및 선진사례 공유 ▲인천환경공단 내 자원순환 연구 분야 확대를 위한 검토 등 다양한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시와 공단은 이번 회의 내용을 토대로 자원순환센터가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접목 시킬 계획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앞으로 건립될 자원순환센터는 환경에 무해하고 시민건강에 안전하도록 최첨단 기술이 도입돼야 한다"며, "자원순환센터 건립 협업 테스크 포스(TF) 운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오염방지 설비와 최적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민 편익 시설 등을 갖춘복합문화타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